

## 일본 주도의 제2차 AZEC 정상회의의 주요성과

- 2024년 10월 1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시아 지역의 탈탄소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인 아시아 제로 이미션 공동체(AZEC: Asia Zero Emission Community)의 제2차 정상회의가 개최됨.
- 이시바 총리가 의장을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의 행동계획이 포함된 AZEC 정상 공동성명이 채택됨.
    - 공동성명에는 AZEC의 3대 원칙인 △기후변화대책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가 재차 강조됨.
  - 2023년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창설된 AZEC은 일본, 아세안(미얀마 제외), 호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제1차 AZEC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제1차 AZEC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서에는 △탈탄소와 에너지 안보 보장을 위한 협력 △경제성장과 에너지 전환 동시 촉진 △각국 상황에 따라 탄소중립 진행 과정은 다양하고 현실적인 경로가 존재한다는 인식에 합의한 바 있음.
- 이번 회의에 채택된 향후 10년을 위한 행동계획은 △아시아의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규칙 형성을 포함한 ‘AZEC 솔루션’ 추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분야에 대한 이니셔티브 추진 △구체적인 사업추진 등으로 구성됨.
- 합의 내용 중 공급망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 가시화 추진 방침에 주목하고자 함.
    - AZEC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평가되는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AZEC 국가간 공급망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에 관한 공통된 규정을 수립하는데 합의함.
    - 이를 위해 2026년 정상회의에서 준비상황을 중간보고하고, 2029~2034년의 기간중 각국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를 고려하여 공통 규정을 논의할 방침임.

표 1. 향후 10년간의 행동계획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AZEC 원칙	△기후변화 대책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
‘AZEC 솔루션’을 위한 행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평가되는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각국 사정에 따라 공급망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의 가시화 진행: 기업 활동에서 온실가스 산정·보고 촉진, 첨단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법 개발 등</li> <li>•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추진: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에너지·인프라 계획에 융자 가능성 향상, 친환경기술·제품·서비스에 투자 집중 등</li> <li>• 농림분야에서 기술보급을 통한 배출 삭감·흡수·제거 추진(JCM 활용)</li> <li>• 운수부문의 탈탄소화: 지속가능한 연료, 원료의 제조, 공급시스템 수립을 위해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항만(CNP) 추진 및 도로 인프라 배출량 삭감</li> <li>탄소 크레딧 시장 확대 차원에서 JCM 제후국가 확대, 관민연계 프로젝트 형성 등</li> </ul>
분야별 이니셔티브	<p>(제2회 AZEC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AZEC 분야별 이니셔티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암모니아·바이오·CCUS를 통한 제로 에미션 화력발전 촉진, 재생에너지 극대화, 에너지 효율화, 송전망 강화 및 유연화에 관한 협력 추진</li> <li>ASEAN 전력그리드 실현을 위한 협력(투자)촉진: 참여국간 송전망 인프라, ASEAN 해저 전력케이블 연계성 강화 등</li> <li>AZEC 지속가능 연료 이니셔티브: SAF·연료·바이오·수소·암모니아 등의 공급망 수립</li> <li>AZEC 차세대 산업 이니셔티브: 산업단지내 탄소중립, 차세대 자동차산업 지원 제공 (아시아제로방출센터)</li> <li>ERIA의 아시아제로방출센터(AZEC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기관)의 기능 강화: 각국의 탈탄소 로드맵 업데이트, 아세안 전력 그리드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일-아세안 차세대 자동차산업전략 마스터플랜 책정, 아시아 CCUS네트워크 및 협력에 의한 관련 제도 구축 지원, 수소암모니아 수급잠재력 조사 등</li> </ul>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	<p>(일본 주도)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수소·암모니아, e-fuel/e-methane, CCUS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AZEC 참여국의 탈탄소화 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50개 이상의 협력 프로젝트 진행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DA(특히 오퍼형 협력)를 통한 사업 추진(민간기업과 ODA 협업 강화)</li> <li>JBIC(국제협력은행)을 통해 일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추진</li> <li>농림분야(일·ASEAN MIDORI 협력계획)</li> <li>JETRO, JOGMEC, NEDO, NEXI 등 일본 기관과 AZEC 참여국 기업·기관·정부와 협력 강화</li> <li>스마트시티 및 폐기물 발전 프로젝트 추진</li> </ul> <p>(호주 주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 아세안-호주 정상회의에서 20억 호주달러 규모의 아세안 투자 금융 발표</li> <li>아시아 제로 에미션 센터 지원</li> <li>아세안-호주 미래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에너지 시스템 규제 및 관리, 에너지 인프라개발 지원 중</li> </ul>

□ 일본은 자국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정책을 바탕으로 AZEC 플랫폼과 같은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탈탄소 규칙 정비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으로 평가됨.

- 향후 10년간의 행동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 도입뿐 아니라 JCM 활용, 전환금융, 제로 에미션 화력발전 촉진 등과 같은 일본의 GX정책이 많이 반영됨.
  -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신뢰 가능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AZEC 내에서 국가별로 각기 다른 배출량 산정·보고의 규칙을 통일시킬 수 있으면 공급망 전체 배출량 파악이 용이해지는 한편 그 규칙이 일본 방식에 기초한다면 일본 기업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운송, 제조업 중심의 고탄소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EU와 같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발전을 동반한 구조적 전환보다 기존 화력발전소를 활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혼소기술, CCS의 활용, 전환금융과 같은 점진적인 혁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와 같은 입장이 일본의 GX정책과 AZEC 행동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이 아시아 역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을 적극 가동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GX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주목하고, 일본과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음.

이보람